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0월 28일(주일) 제1218호



제자 세우고, 다음세대 세우고, 미래 교회 세운다!

사랑 넘치는 양재 유아부 아이들과 교사. 사진제공=신익토 성도

2019 차세대 교사 모집 ...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수능(11월 15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위한 기도회 이어져

제자 세우고, 다음세대 세우고, 미래 교회를 세우는 차세대 교사 모집이 한창이다. 차세대지역본부가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를 주제로 오늘까지(28일) 2019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를 실시한다. 현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최소 474명(서빙고 109명, 양재 98명, 도곡 35명, 부천 53명, 수원 45명, 대전 37명, 남양주 30명, 인천 32명, 강동 10명, 평택 5명, 양지 20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도 교사를 모집한다. 사랑부 교사는 최소 42명(서빙고 19명, 양재 5명, 부천 5명, 인천 3명, 강동 10명)이 더 필요하다. 사랑챔버(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트럼펫)와 온사랑합창단(성악, 피아노, 작곡, 사회복지사)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가 대상

이다. 신청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교사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0월 말과 11월에 자체적으로 교사 모집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한 성도는 '신입교사 사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입교사 사명교육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훈련과정이다. 서빙

고 목요반(11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과 서빙고 토요반(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양재와 도곡교육관 신입교사 사명교육은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운유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5일은 2019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딱 18일 남았다. 차세대지역본부는 11월부터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신관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평일에만 '수능매일기도회'가 진행된다. 시험일인 11월 15일에는 오전 8시 4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능종일기도회'가 진행된다. 수능종일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다큐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31일 개봉

영화배우 추상미가 감독한 다큐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10월 31일(수) 개봉한다. 필름포럼(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A동 B1층)과 서울극장(종로구 돈화문로 13), 영화공간주안(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16)에서 상영한다.

다큐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 고아 1,500명과 폴란드 선생님들

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남(추상미)과 북(이송)의 여자가 찾아 떠나는 치유와 회복 여정을 담았다. 감독 겸 배우로 출연한 추상미와 탈북 소녀 이송이 함께 폴란드로 날아가 당시 고아 양육시설을 답사하고, 그곳에서 근무했던 폴란드 선생님들을 직접 만난 인터뷰 한 내용이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전쟁 고아들을 그리워하며 "그 아이들에

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말하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애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분 공식 초청작이기도 하다.

문의: 필름포럼 02-363-2537

서울극장 02-2277-3014

영화공간주안 032-427-67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영범 장로 평양남노회 노회장 선출



지난 10월 23일 부산 센텀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189회 평양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송영범 장로(양재공동체)가 평양남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장로는 앞으로 1년 동안 평양남노회 노회장으로 섬기며 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송 장로는 취임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회 안내

일시: 11월 3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사무, 명예, 협동장로

People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했으면...”

만나고 싶었습니다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수비포지션) 중 한 명, 대한민국 축구계의 레전드, 축구계 성실함의 대명사, 기록 없는 플레이와 철저한 자기관리...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24일 부흥축제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 이영표 집사를 만났다. 서글서글한 웃음과 조곤조곤한 말투, 현역 시절 별명(초롱이) 그대로 눈빛이 반짝였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전열함이 담백 묻어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영표 집사가 본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 나누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이영표 집사는 축구선수로서 쌓을 수 있는 경력은 모두 쌓았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고,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꿈의 유럽리그에서도 활약했다. 은퇴 이후에는 집필, 축구 해설가, 사회적 기업 ‘Socks Up’ 대표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회나 집회에서 간증도 한다.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집회에서 간증하고, 책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답지 않은 말이었다. 겸손한 것일까? 정말 솔직한 것일까?

그렇게 싫어하던 기독교였는데...

이영표 집사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회심하기 전 이영표 집사는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협오까진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본 기독교는 나빠 보였거든요.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마음에 정 말 안 들었어요.”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싫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으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자기들이나 잘 하라”며 조소한 적도 많았다. 정말 오랜 시간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을 싫어했고 의심했다. 그런데...

“더 이상 종교를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더라고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종교로 인해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고 기도했어요. 증거 없이는 못 믿겠으니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금씩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있었다.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졌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음과 보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믿는 것은 단순히 확인일 뿐이더라고요. 확인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얼마 전 세상에 나온 자서전 <말하지 않아야 할 때>에서 ‘무통주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마음고생이 몹시 심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

“기사 제목을 보면 누구든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기사를 보고 이영표를 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니까요(웃음).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것을 100% 믿는 우리 사회가 어찌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언가 모를 분노에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를 우려하는 그의 성숙함이 참 근사해 보였다. 그래서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분명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

성공해도 은혜, 실패해도 은혜

이영표 집사는 책을 세 권이나 냈다. 2009년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홍성사), 올해 <말하지 않아야 할 때>(홍성사), <생각이 내가 된다>(두란노)를 썼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를 썼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는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았다.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공해도 은혜이고,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고, 박탈감과 상처를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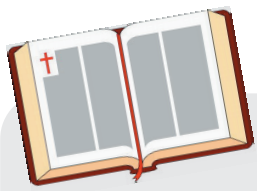
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맛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제목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이영표 집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제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가 가장 정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기사를 읽고 감동이 있거나 저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저를 위한 기도보다 CGNTV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우리에게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구원의 검

에베소서 6:10~20

“성령의 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찌르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적을 내쫓고 당황케 하고 무너뜨리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무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는 대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방어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너희가 취하라, 성령의 검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라, 성령의 검을 차고 그것으로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단검을 의미합니다. 적들과 가까이 맞서 싸우는 싸움에서는 반드시 단검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백병전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 공격하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검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분입니다. 기쁨같이 부드러운 분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하신 분입니다. 아침이슬처럼 조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로와 평화로써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영이기도 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보혜사(保惠師)’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파레클레토스’는 ‘곁에 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위로자 혹은 상담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 어떤 번역보다 ‘늘 함께 있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라는 보혜사라는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장 먼저 소개한 단어는 위

로나 평화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참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불처럼 심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되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령님은 심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책망하시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할 때 나는 전혀 변화 없이 내 밖에 있는 영들만 내가 공격하는 무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검은 대적하는 적을 공격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수술하는 무기입니다. 병든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더러운 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복을 위한 수술입니다. 스피전 목사님은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치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나를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영적 수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은 강한 바람에 의해 운반되듯이 성령님에 의해 운반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고전 2:10).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까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히 4:12-13).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전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갬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우리의 영혼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깊은 상태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세상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다, 세상이 저렇다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자신의 깊은 상태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할 때 성경은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일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판단, 의식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

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렘 23:29).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그리고 망치처럼 우리를 깨뜨리고 칼로 찌르시는 것 같이 죄를 책망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깨뜨리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수술을 거쳐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수술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 맺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공격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사탄을 우리의 생각,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사탄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만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격을 받으실 때 사탄을 이기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유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메시아인데 이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난은 메시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이 말씀으로 대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신 8:3).

〈13면에 계속〉

2018 온누리부흥축제 **바른성공****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르다!**

참가자 2,439명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성공” 다짐



2018 부흥축제 현장. 웃으며 찬양하고 강의 듣는 성도들과 김혁건 형제(‘더 크로스’ 보컬).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방향 또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기독교인들에게 데이비드 플랫(맥린바이블 교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르다.”

지난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2018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에는 성도 2,439명이 참석했다. 세상의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어떻게 다른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성공을 꿈꿔야 하는지 치열하게 묻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부흥축제 ‘바른성공’ 주강사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6회에 걸친 강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진정한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서는 특별강의와 간증, 영화상영도 이어졌다. 오디오 성경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 모건 잭슨 부회장(FCBH),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우 대표(이노레드)의 특별강의,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는 이영표 집사(전 축구선수),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인 된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새 꿈을 꾸고 있는 김혁건 형제(‘더 크로스’ 보컬), <갈대상자> 저자 김영애 권사의 간증, 진짜 살아있는 선교이야기를 그린 영화 ‘파파 오랑후탄’이 상영됐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 참석한 성도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박연지 성도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성공임을 알게 됐다”고 했고, 교회선 성도(서대문공동체)는 “삶 속에서 매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참가자 인터뷰**“강남 아파트보다 말씀!”**이정숙 집사
(영등포구공동체)

사실 저는 강남 아파트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저기 살 수 없을까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에서 “더 이상 멋진 빌딩과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입니다.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가족, 이웃을 풍요롭게 만드는 발!”송영희 성도
(중종로공동체)

내 삶이 발이 되고, 집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발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풍요롭게 만드는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황호준 형제
(J4U공동체)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와의 관계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이번 부흥축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은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성공의 길!”윤유조 성도
(일산공동체)

이번 부흥축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사명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자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진짜 성공의 길을 걸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 메시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을 정의할 때 세상과 똑같이 정의하면서 그 위에 ‘기독교’라는 이름만 덧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 기도, 전도, 제자의 삶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는 리더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자 아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리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추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둘째, 그들은 헌신 없이 구원에 대해서만 기뻐했습니다. 헌신 없는 구원이 오늘날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헌신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헌신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함 없이 가짜 예배를 만들어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정계함 없는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아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하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소유한 물질, 시간, 가치를 헌신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 것처럼, 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공입니다.

멤버십, 리더십, 공동체생활

교회의 참 성공은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큰 건물, 훌륭한 찬양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기초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

습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의 참된 성공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합니다. 교회의 참된 성공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성례, 헌금, 선교

진정 성공하는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진정 성공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리더가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고 목양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진정 성공하는 교회는 서로 이타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진자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권징해야 합니다. 가슴 아플지라도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죄 지은 자를 권징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구원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기대하며 성만찬을 나누야 합니다.

물질과 헌금을 헌신적으로 내어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아야 합니다. 진정 성공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기만과 속임의 위험

교회가 부딪히는 위험은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보면 다른 점이 없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이혼율도 세상과 비슷합니다. 자녀 키우는 방식도 세상 부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17절에서 “세상의 것을 사

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고방식과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겪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과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른 성공이고, 참 만족, 참 기쁨입니다.

변영의 이상

학력, 직업, 커리어, 가족, 풍족함이라는 변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영이 삶의 중심이 되면 이상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변영하며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변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삶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바울은 혈통, 높은 지위, 종교적 행위, 성경 지식, 윤리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배설물을 치우고 예수님이 삶의 전부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변영을 잃어버리면 고통을 경험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고통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영이 없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만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감옥이 아니라 변영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성공을 맞볼 것입니다. 고통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죽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변영이라는 우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훨씬 좋습니다.

선교의 긴급성

바른 성공을 추구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답



데이비드 플랫 목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안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까’입니다. 제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창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삶을 보존할 것입니까, 선교를 위해 희생할 것입니까’입니다. 히말라야에서 24개 미전도 종족 마을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들어본 적 없이 죽어가는 불타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갈급하고 긴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하는 삶을 보존하고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망설일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입니다.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늘밤 자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저입니다”라고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빛진 자로서...

강촌공동체 강화도 선교탐방

오색 빛깔 단풍, 드높고 파란 하늘, 청명한 공기... 날이 너무 좋았던 지난 20일 강촌공동체가 강화도 선교탐방을 떠났다. 햇살에 부서지는 파도, 비상하는 갈매기, 설레는 마음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어디를 봐도 장관이었다. 강촌공동체 선교탐방 코스는 강화도 복음의 성지로 불리는 교산교회, 성공회 강화성당, 갑곶순교성지 등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그 아름답고 뜻 깊은 여행에 동행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강촌공동체 성도들이 강화도 선교탐방을 갔다(좌). 교산교회 선상세례 기념물(우).



강화도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 강화도에 교회가 200여 개나 세워졌고, 지금도 강화도 주민 25%가 기독교인이다.

깊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 되새기며

노용환 성도(강촌공동체)는 강화도 선교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강화도 주민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빛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용환 성도의 말처럼 당시 강화도 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말씀을 실천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강화도 잠두교회 다니던 김 씨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서 복음을 들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 김 씨 할머니는 종을 두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교인들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여종 복심이를 양녀 삼았다. 노비에서 풀려난 복심은 김 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강화도 홍의교회에 다니던 종순일 성도는 빛 탕감과 관련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채무자들 앞에서 차용증서를 불태워버렸다.

강촌공동체는 강화도에 있는 유적지도 탐방했다. 성공회 강화성당에도 갔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 코프가 건립한 한국 최초의 한옥 성공회 성당이다. 현존하는 한옥 교회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다.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과 동양의 불교사찰 양식을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또한 강촌공동체 성도들은 갑곶순교성지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묵상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빛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새겼다. 강촌공동체 성도들은 깊은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긴 이번 선교탐방을 통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에 맡기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멀시와 천대만 가득했던 조선을 은총의 땅으로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진 자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심길섭 장로(강촌공동체)의 뜨거운 기도가 교산교회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 절절한 기도는 선교탐방을 함께 떠난 강촌공동체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다. 강촌공동체 선교탐방은 교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강화도와 교산교회 그리고 복음

강촌공동체가 강화도 선교탐방을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김동언 장로(강촌공동체 대표장로)가 이번 강화도 선교탐방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화도 선교탐방은 한국 기독교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선교탐방을 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산교회를 첫 번째 행선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 교산교회는 강화도 선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교산교회는 강화도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강화

도는 복음의 불모지였다. 당시 강화도 사람들은 병인양요(1886년), 신미양요(1871년), 윤요호 사건(1875년)을 겪으면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그 엄청난 반감을 강화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파란눈의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없앴다.

감리교 인천 내리교회 2대 담임목사(1대 아펜젤러 선교사)였던 존슨 선교사는 강화도를 너무 사랑했다. 강화도 주민들에게 전력을 다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첫 번째 강화도 선교에 실패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존슨 선교사는 당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승환은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인 강화도로 내려가 어머니를 전도했다. 그리고 존슨 선교사에게 어머니의 세례를 부탁했다.

그런데 당시 유지였던 김상임의 반대로 존슨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승환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 존슨 선교사가 있는 강가로 갔다. 존슨 선교사는 강가에 있던 나뭇배에서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선상세례를 베풀었다. 이 일이 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산교회의 전신인 ‘시루미 예배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당시 마을 유지였던 김상임은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지(난세를 피하여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10여 곳의 장소)를 찾

고 있었는데 존슨 선교사가 준 한문성경을 읽고 진짜 십승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복음이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면서...

김상임은 존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제물포와 평양신학회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된 김상임의 삶이 달라졌다. 소유하던 토지를 헌납하고, 지역 복음화에도 앞장섰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기독교는 천민들이나 여자들이 믿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유지였던 김상임이 기독교인이 되자 기독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고, 강화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조성준 성도(강촌공동체)는 강화도에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했던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면서 강화도 주민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던 존슨 선교사님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맞춤집회 '희망노트'



지난 17일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희망노트에서 2천 명의 재학생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찾았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학부,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희망노트 개최

희망노트는 힘겨워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참 희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캠퍼스 맞춤집회다. 2014년 명지대, 2015년 충남대, 서울여대, 2016년 호서대, 2018년 5월 명지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희망노트는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대학교에서 막 올랐다. 지난 17일 희망노트 집회가 열린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대학생 2천 명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희망노트는 온누리교회 대학부와 대학교가 연계해서 개최하는 캠퍼스 맞춤집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표다.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존재 그 자체가 귀하다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열린 이번 희망노트에서는 세 번의 집회가 이어졌다. 최성민 목

사(대학부 담당)가 메시지를 전했고, 가수 김신의(그룹 Monni)와 CCM 가수 지미선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했다.

최성민 목사는 대학생들에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목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게스트들의 찬양과 간증은 지쳐 있는 대학생들을 깊이 위로했다.

CCM 가수 지미선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

후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얻었다”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가수 김신의는 대학생들에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희망노트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큰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한 이도 있고, 삶의 방향을 발견했다는 대학생도 있었다.

최복원 학생(글로벌리더십학부 1학년)은 “내가 늘 못난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었는데 사

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했고, 김혜원 학생(국제어문학부 2학년)은 “살아갈 이유를 몰라서 끝없이 방황하고 우울했는데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장석범 학생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뜻 깊은 집회였다”고 말했다.

희망노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난 대학생도 있었다. 윤혜림 학생(상담심리학 3학년)은 “아직은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희망노트 참가자 소감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오랜만에 감동받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면서 지쳐있던 나를 보고 계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 유지현 학생(법학부 3학년)

“삶의 방향 잡아주는 나침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 같다.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참석하게 된 희망노트 집회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 유수정 학생(글로벌리더십학부 1학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희망노트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 윤진현 학생(상담심리 3학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느꼈고 그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 정겨운(전산전자공학부 3학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1,200개 언어로 녹음된 ‘FCBH 오디오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 세계 최대 오디오 성경 선교회 ‘Faith Comes By Hearing(이하 FCBH)’이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로 녹음하는 이유다. FCBH는 190개국 1,200개 언어로 번역된 오디오와 비디오 성경을 보급해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제3세계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잘만 활용된다면 선교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그룹용 단말기로 FCBH 오디오 성경을 시연하는 모건 잭슨 부회장(좌). FCBH 오디오 성경 어플 'Bible.is' 실행화면(우).



모잠비크 56.1%, 네팔 57.4%, 인도 62.8%(CIA 2013)…。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지의 문해율(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교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 두 명 중 한 명이 글을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문해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경책 보급률은 물론이고 효율도 떨어진다. 그렇지만 FCBH가 보급하고 있는 오디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FCBH가 제작한 오디오 성경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전용 단말기(1인용, 소그룹용, 대그룹용)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적게는 한 명부터 많게는 천여 명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지난 2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 대그룹용 단말기 하나로 참석자 150여 명이 FCBH가 제작한 오디오 성경을 들었다. 단말기 성능뿐만 아니라 오디오 성경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았다. FCBH 오디오 성경은 한국어는 남한과 북한 두 가지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 버전은 물론이고 북한 버전도 특유의 억양까지 정말 잘 살렸다.

복음은 글을 몰라도, 엘리트가 아니어도 전해진다

성경에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롬 10:17)이라고 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들이라고 외쳤고, 신약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입술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5년이 지나서야 마가복음이 쓰였다. 그 전에는 모두 입술로 복음을 전한 셈이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FCBH 모건 잭슨 부회장은 아프리카 컴커마족과의 일화를 간증했다. 컴커마족은 선교사가 2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두 명만 예수님을 믿을 만큼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다. 그런데 FCBH가 제작한 오디오 성경을 통해 부족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

어느 날 모건 잭슨 부회장이 주민들과 천막에 모여 앉아 마가복음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 오디오 성경을 들었다. 오디오 성경이 끝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예수님은 돼지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이 대답했

다. “그럼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 그러자 한 상인이 말했다. “예수님은 돼지의 값을 치르셨을까? 돼지 2천 마리가 죽은 거면 마을 경제에 큰 피해가 있었을거야.” 모건 잭슨 부회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자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각에는 귀신들린 사람과 돼지 2천 마리의 값을 놓고 비교하면 귀신들린 사람이 죽는 게 좋지.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 2천 마리보다 귀신들린 사람의 한 영혼이 값진 거야.”

이처럼 복음은 글을 몰라도, 엘리트가 아니어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

FCBH 오디오 성경 활용법 ‘40일 플랜’과 ‘비디오 성경’

FCBH가 제작한 오디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된다.

우선 어플이나 단말기를 현지인 동역자에게 전달한다. 현지인 동역자는 마을로 가서 주민들에게 매일 오디오 성경을 함께 듣자고 설득한다. 선교지 주민들이 오디오 성경을 듣기로

결심했으면 ‘40일 플랜’을 시작한다. 40일 플랜은 하루 40분씩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40일 만에 신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디오 성경을 듣고 나서 토론하는 것도 좋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왜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나요?’,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질문을 하면서 주민들끼리 토론하게 한다. 40일 동안 관리자는 주민들이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성경을 더 읽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면 된다.

스마트폰 혹은 대형 모니터가 있다면 ‘FCBH의 비디오 성경’을 활용하면 더 좋다. 신약 성경을 드라마화한 것이다. FCBH는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Bible.is’라고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전용 단말기는 2000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6

FCBH 다운로드 QR코드



칼럼



모건 잭슨 부회장 (FCBH)

한 부족에게 FCBH 단말기를 제공하면 모든 부족이 모여서 성경을 듣는다. 하나만 있으면 한꺼번에 천명이 모여 앉아 성경을 들을 수 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한 원주민이 “하나님은 영어로만 이야기한다”고 대답했다. 내가 그 원주민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로도 말씀 한다면 FCBH가 제작한

오디오 성경을 들려줬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한 다며 한 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

구전 문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몰입한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한 선교사가 2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두 명이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말씀 한 시간을 듣고 주민 절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다. FCBH 오디오 성경은 원주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도구이다.

나는 많은 원주민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들에게 “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귀 기울였는지” 물

었다. 그들 중 1/3이 예수님의 족보가 감동적이라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빠대 있는 가문의 사람인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무슬림들은 신약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무슬림들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며 성경을 들려준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들은 무슬림들은 조용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맹이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일자무식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느냐고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95%가 문맹인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다. 그들의 제자까지 포함해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글을 보여 주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다. 당시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친 것을 억양까지 똑같이 기억하고 배웠다. 제자들은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통으로 기억해서 전했다. 모든 마을에 가서 설교할 때 산상수훈 말씀을 통째로 설교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선입견들을 정리하기를 바란다. 사역 대상자들이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기를 바란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다.

전문가 기고 말(言)의 힘은 크고 살아 있다!

말에도 ‘레시피’가 있다

또박또박한 발음, 적절한 속도, 환한 표정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라운위즈 대표,
스피치 디자이너)

언어는 소리언어(Verbal language)와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비소리언어(nonverbal language)의 영역으로 나뉜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웅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반영하듯 한때 사극이 대세인 적이 있었다. 몇 해 전, 관객동원 신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과 조선 개국의 기초를 다진 드라마 ‘정도전’이 세간의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들의 감칠맛 나는 명대사에 있었다.

글의 서두에 언급한 세 문장의 멘트는 드라마 ‘정도전’에 나온 명대사이다. “삼봉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이성계의 질문에 정도전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청각과 의지, 감성을 동원해 운율에 맞춰 시청각적으로 표현한 드라마 명대사 중 하나다.

3은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뇌 속에 깊이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설교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로 풀어나가면 성도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세 번의 반복은 설득이 생명인 광고카피의 기본인데, 위의 세 문장에는 체온이 실려 있다. 열정이 전해진다. 백성과 임금에 대한 사랑이 와 닿는다.

말 조리법(레시피)

말에도 ‘레시피’가 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는 속담은 이제 옛 말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앞서서는 사람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갖는 실망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때에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가치가 있다. 스피치의 파워는 로마시대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신언서판(身言書判), 즉 그 사람의 외모와 언변, 글솜씨, 판단력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스피치 능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남자가 입을 여는 순간 내시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혼자 떠벌충 같은 속도로 말을 내뱉거나 표현력이 부족해 더듬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이미지 관리에 좋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시작은 소통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OECD 국가에서 부끄러운 1위를 달리는 이혼율도 소통의 부재가 발단이다. 남녀 간, 노사 간, 세



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소통의 한계점에서 발원한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면접이 없는 채용은 거의 없다. 수십 대 혹은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과연 실력과 스펙이 탁월해서일까?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

나 역시 면접관이나 미인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지만 응시생이 백 명을 넘어 가면 피로감이 몰려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한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는 일하기에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만 점차 집중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전달의 기술에 따라 그들은 택함을 받는 기로에 서게 되고, 개인의 진로가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다른 갈래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베스트셀러가 되었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의 저자 사사케 케이이치는 대형 광고회사에 입사해 광고 카피라이터 업무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로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는 전달하는 방법에도 기술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저자는 자격증의 비중이 10%라면 전달의 기술은 90%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리에 레시피(조리법)가 있듯 말에도 레시피가 있다. 말 조리법은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CEO, 목회자, 의료인, 교육자들이 먼저 익혀야 할 필수 코스다.

발음의 중요성

언젠가 기독교 관련 강연회에 간 적이 있다. 네로라하는 유명 목회자 및 각 분야 전문

가 강사들이 나왔다. 그들의 강의를 들으며 은혜도 받고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왕이면 정확한 발음과 좋은 표정,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잘 했다면 훨씬 전달력을 높였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강사는 마이크 사용법이 서툴러 과열음이 마이크를 짹짹기는 바람에 강의 내용은 거의 안 들리고 공해 수준이었다. 스피치 디자이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다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날 강의에서 은혜 받았노라고 칭찬해 드리고는 스피치 무료 코칭을 제의했다. 한두 번 정도 발음 교정과 마이크 사용법을 봐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셨다. 그래서 평소 본인의 강의를 모니터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천천히, 끝까지 또박또박 강의를 하시면 훌륭한 내용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은혜만 받으면 되지, 설교나 강의를 비판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일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던 시대는 지났다. 기독교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났고, 설교의 전시장처럼 종일 여기저기서 설교와 강의가 나오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비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성도들의 듣는 귀는 박사급이 되어 있다.

설교자가 설교 중에 많이 하는 발음 실수 중에 중모음 장애가 있다. 예를 들자면 죄를 ‘제’로, 권사를 ‘권사’로, 광주리를 ‘강주리’로, 방향을 ‘방양’으로, 굉장하기를 ‘굉장이’로, 발휘를 ‘바리’, 이렇게를 ‘이케’로, 된장찌개를 ‘댄장찌개’로, 가위바위보를 ‘가이가이보’로, 외부부장관을 ‘애무부장관’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발음을 하면 웃

음도 나오고 일단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다.

한 시골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 교사를 불러 학생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었다. 담임교사는 “대지가 안 팔려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땅은 좀 있는 집안인가 보죠?”라고 물었고, 담임교사는 “그런 애긴 못 들었는데요? 대지만 팔리면 수업료는 낼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계속 동문서답 하다 결국 그 ‘대지’가 땅이 아니라 ‘돼지’임을 한참 뒤에 알았다는 웃지 못 할 일이었다. 중모음 발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심지어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도’로, 읊소서를 ‘오보서’로 발음하면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따라하고, 집사님이 따라하고, 새신자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하게 된다. 교사의 발음을 학생이 배운다. 외국인이 첫 번째 배우는 한국어가 사투리면 그렇게 굳어지는 원리다. 리더의 언어는 그래서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이 있다. 요즘처럼 영상이 전 세계에 중계되거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사람은 교회의 명예를 걸고 좋은 콘텐츠를 남겨야 한다.

핵심은 청중과의 교감

스피치의 3요소는 내용(Contents)과 스피커(Speaker, 연설자)와 청중(Audience)이다. 교회는 설교 내용, 설교자(목회자), 교인이다. 특히 청중(교인)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아나운서처럼 고저장단, 음까지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다. 단어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중모음 발음이 안 되고 정확한 어미 처리가 안 되는(이를 두고 문장을 말아먹는다고 한다) 것 보다는 또박또박하는 발음이 듣기 좋다. 설교 내내 아단치는 어조나 짜증스런 표정, 징징대는 목소리는 청중을 지치게 만든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밝은 표정의 강사가 호소력을 더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멈춤(Pause)과 클라이맥스(최고조, 절정)도 필요하다.

또 스피커가 청중보다 먼저 흥분하면 안 된다. 아재개그가 아닌 반전의 유머로 청중을 웃기면서도 본인은 웃지 않는 노련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청중은 웃지 않는데 본인이 흥분해 혼자 웃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 나올까? 전자가 훨씬 낫다. 위 내용들은 비단 교역자나 강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순을 인도하는 순장이나 평신도 리더들, 직장 상사한테도 적용되는 얘기다. 말은 훈련할수록 영향력을 갖게 되는 소통의 도구다.

2018 Acts29 비전컨퍼런스 개최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 협력위원 등 100명 참석



비전컨퍼런스에 모인 29개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 캠퍼스 담당목사, 당회운영위원, 해외비전교회 협력위원들.

‘2018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됐다. Acts29 비전컨퍼런스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베트남, 아부다비 등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와 비전위원, 해외비전교회 협력위원, 당회운영위원, 캠퍼스 담당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컨퍼런스는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지역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가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선교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해외비전교회가 신실하고 충실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윤길중 목사(Acts29비전교회 행정담당)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와 비전위원들은 고국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말했다고, 박구병 장로(당회운영위원)는 “해외비전교회와 더욱 협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대일데이’ 행사 성황리 개최



일대일데이 행사에서 성경읽기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이.

일대일사역팀과 어린이일대일사역팀이 지난 주일(2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일대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일대일데이 행사에서 일대일사역팀은 성경암송게임 부스와 고충상담데스크를 운영했고, 어린

이일대일사역팀은 다트게임 부스, 성경읽기 게임 부스, 서약문 작성 부스를 운영했다. 어린이일대일양육 서약문을 작성한 부모와 어린이는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했다. 육동건 장로(어린이일대일사역)는 “어린이일대일양육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통로”라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이일대일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어예배 청년부 수련회 개최

지난 20일(토) 일본어예배부 청년들이 불광동에 있는 팀비전센터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청년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예배, 그룹별 나눔 및 레크리에이션, 큐티 나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친목을 도모한 것은 덤이었다.

/ 정현주 기자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참가자교육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참가자교육이 11월 1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에 참석하는 봉사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날 참가자교육은 주찬양 찬양사역팀(서빙고 1부 성가대)과 인천 주은혜 찬양사역팀의 연합 특순, 박종길 목사 설교, 러브소나타 일정 및 봉사 안내, 선물패킹, 후쿠오카 현지 교회 안내, 간단한 일본

어 인사 및 축복송 배우기, 종이비행기 접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후쿠오카 기·도·제·목

■10월 29일(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러브소나타 되기를
■10월 30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10월 31일(수) 일본 목회자들과 협력교회가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11월 01일(목) 이재훈, 안도 리에코 목사님이 성령의 전신감주를 두르도록
■11월 02일(금)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신할 수 있도록
■11월 03일(토)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과 지혜로 섬길 수 있도록
■11월 04일(주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CGNTV ‘기독교영화 기획안’ 공모전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제출

CGNTV가 ‘기발하고 독실한 영화 기획안’ 공모전을 열고 있다. 비기독교인도 공감할 수 있는 기발하고 독실한 기독교 영화 기획안을 작성해서 이메일(cgncinema@cgntv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일인당 세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다. 양식은

CGN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마감은 11월 30일 오후 6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9일 CGNTV 홈페이지에서 한다. 수상자(우수상 300만 원, 입상 150만 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cgncinema@cgntvmail.net.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3일 오후 5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강한다. 한국어선교학교에서는 이주민 한국어교육법과 이주민 선교방법 등

을 배울 수 있다. 이주민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30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9010-0698

강동, 순 찬양축제 ‘One Voice’ 개최

11월 11일 오후 5시 본당

강동 온누리교회가 순 찬양축제 ‘One Voice’를 개최한다. 11월 11일 오후 5시 강동 온누리교회 12층 본

당에서 진행된다. 말씀, 믿음 공동체, 대정 프라미스공동체, 차세대 등 총 13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지 10월 14일자(1216호) 6면에 게재된 “열악한 군부대 교회를 도읍시다!” 기사를 보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 성도님께서 3천만 원

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을 마중물 삼아 소망교회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세례자

■서빙고	나지엽 김민정	김희원 170228	이선희 800214
김민섭 820624	안하람 170210	김도윤 김소영	정윤지 901106
김영미 591106	안지현 최선미	남라현 170215	유아
남구현 550709	이영배 170607	남규승 임선희	윤하은 171031
류가영 820125	이찬희 이정민	서노아 170406	윤성원 양은진
박혜정 570714	이지성 161102	서영찬 김하린	허브
서지현 550814	이재준 나지영	서혜윤 170927	김신혜 970723
우희정 690219	이하나 170911	서형원 윤유나	박현경 980609
임재준 950504	이예훈 정호정	양승우 160611	양승진 950125
정세훈 790202	장시은 170424	양민석 김소연	윤의형 980528
정호정 830713	장 욱 김문주	이예희 161230	이소현 950402
황지영 820407	조현율 161027	이한규 박보림	정승길 980626
입교	조성훈 김국희	정운유 170903	황재영 951016
김수진 880821		정은진 김혜민	입교
이태라 030815		정유하 160831	김예린 950910
이태오 000301	■양재	정우선 안지현	임하영 000113
한지혜 870203	김인식 880506	최슬아 161214	진혜린 950309
유아	김현주 900102	최석진 이슬기	최하희 960115
강수인 171221	박희운 770403	황유림 180418	하늘
강규범 지애경	정연원 840214	황호민 노유진	입교
김예현 171018	조은석 810512		김예지 990906
김현태 신예슬	진애경 741011		윤수빈 971107
김나은 170216	황성현 770122	■대학청년부	SNS
김희건 김미영	유아	여호수아	김주현 880303
김다은 170207	김다은 170221	김일주 900627	서재형 911120
김성주 염애영	김영실 이연정	남보람 880204	이지선 850531
김지윤 161231	김라온 180507	위대영 850212	이진선 861011
김병훈 이선영	김영실 이연정	이영범 850311	전상은 861011
나현서 170222	김주찬 170407	이주현 830724	채석병 891006
	김하영 김재신	입교	

제1218호 | 2018년 10월 28일(주일)

■ 세계관학교 스태프 간증



/ 박윤옥 집사(세계관학교)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와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와 철학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낯설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과 문화의 옷을 입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부분 이러한 사상들은 비기독교적인 바알 신앙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세계관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세계관학교는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세계관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석학들이 강의한다. 그들이 들려주는 강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듬어 준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세계관학교에서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기

복신앙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 밖에도 인간론, 신론, 구원론을 포함해 우주의 근원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극치를 넘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세계관의 조류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복음으로 바라보자. 복음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다. 우리 모두 세계관학교에 참여해 그리스도 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자.

세계관학교 개강

날짜: 11월 7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

문의: 010-5587-4205

■ 예배학교 수료 간증



/ 이승철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목사님의 설교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예배학교에 등록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아이스쿨 과정 중에서 ‘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항상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배학교는 4주라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지만 평일 저녁 수업이라는 게 약간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학교에 등록했다.

예배학교의 첫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횡수를 셀 수 없었다. 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배학교에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다. 하나님께 주일 오전 시간 일부를 드린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 나는 예배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찬은 매일 있는 행사다. 자주 있는 행사다 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 세례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미 저 믿음 좋은 시절 다 지났지. 나도 처음 믿을 때는 저랬지’ 하곤 했다.

나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 다시금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예배학교에 참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매주 주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동일하다. 예배학교로의 부르심도 내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었다.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다.

예배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하자!’이다. 예배학교를 통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탄자니아 ‘신기다 유치원’ 건립



/ 김성환 집사(가정사역공동체)

한 알의 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요 12:24).

이 말씀대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정사역공동체 소망1순 순원들이 떠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록 작지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 역할을 해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다. 적도가 지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로 유명한 나라이다. 신기다 지역은 탄자니아에서도 오지 중 오지다. 이 지역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유치원이 한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완공되었고 얼마 전 문을 열었다.

신기다 유치원은 총 대지면적 약 528,925㎡에 원아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유치원은 한국 선교사들이 신기다 지역에서 이룬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치원이 세워진 같은 대지에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남여기숙사와 종합병원, 선교센

터들이 세워지는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유치원 자체가 탄자니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통합 교육과 지역사회주민 교육을 포함해 성장할 성화를 위한 시설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건축물 역시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유치원이 완공되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온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학교설계의 권위자인 이호진 건국대 명예교수가 약 12억 원에 이르는 설계를 재능기부 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정사역공동체 소망1순 순원들과 그들의 지인들까지 참여해 모두 28명이 3년여에 걸쳐 후원에 동참했다. 모두들 밀알 하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신기다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역할을 해냈다.

밀알은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시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키비 IBS School 수료 간증



/ 박선화 성도(푸른누리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대학생 시절 하나님을 만나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만 오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졌다. 동역자들을 만나 믿음생활과 사역을 함께 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으며, 유대인과 선지서 말씀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다. 또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싶었다.

키비 IBS School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의 좁은 소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영원한 부활이

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셋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막힌 담을 허물고 돌로 하나를 만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온 ‘새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헐어 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엡 2:14-16).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흐름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에 나는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원한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인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것이다.

장로칼럼

스마트폰 시대의 그리스도인



안용태 장로
(일산공동체)

불과 10여 년 전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본래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로 시작된 스마트폰

은 컴퓨터 기능이 탑재되고 소형화에 성공하여 그야말로 움직이는 전화-컴퓨터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전화와 개인 컴퓨터 기능을 넘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라는 개인이나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소통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소형 컴퓨터의 기능은 단순한 정보 창고의 기능뿐 아니라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를 전달해 주며 이를 통한 과학, 문화, 예술 등의 진보에도 기여하는 공로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장점 중의 하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적 음란물 등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얻게 되는 정보는 마치 패스트푸드와 같아서 좀 더 깊은 지식이나 깨달음의 단계의 접근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오락프로그램에 몰두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게임 중독 현상’이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10여 년 섬기면서 관찰하며 깨닫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주 광범위하며, 한번 빠지면 치유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거의 ‘스마트폰 세상’에 머물며 살려

고 한다. 친구들도 거기서 만나고, 게임이나 오락프로그램에 빠져들고 학교나 부모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인 스마트폰 세계 속에 안주하려 한다. 당연히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고,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커피숍이나 여러 모임의 장소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장면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는 큐티 생활을 강조한다. 큐티를 하려면 조용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그런데 잠깐 때도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자고, 아침에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일어나자마자 밤 사이에 걸려온 전화나 문자, 카톡을 확인하는 일상의 리듬 속에 큐티 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은 나의 몸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한다. 어쩌다가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겨 하루라도 없애지면 허둥지둥 정신이 없고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처럼 불안하게 지낸다. 이것들을 한 마디로 줄이면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말씀을 듣고 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다양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스마트폰에 의존된 삶을 매일 살고 있다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수 있고, 또 타인과의 만남이나 관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다. 일상의 유용한 휴대폰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권사칼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조옥환 권사
(강남D공동체)

강남D공동체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세계성막복음센터’에 다녀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했을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존재했던 성막들

이 실제 크기 또는 축소판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과 관련된 그림들을 종종 보긴 했지만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성막 체험을 직접 해보니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막연했던 성경 말씀이 실제로 다가왔다.

세계성막복음센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건축물들과 노아의 방주, 구약 시대의 각종 유물들, 그리고 구, 신약을 배경으로 그린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사용됐던 ‘번제단’,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된 ‘물두멍’, 지성물인 ‘법궤’, ‘떡상’, ‘분향단’,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 ‘등잔대’도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과 성물을 직접 보니 매우 흥미로웠다. 또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성경구절을 직접 언급하면서 설명해주시니 마치 구약시대에 와있는 것 같았다.

사실 시편과 잠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나에게 매우 딱딱하게 느껴졌다. 말씀이라기보다는 역사로 인식되곤 했다. 하지만 성막을 직접 체험해보고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구약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기도 했다.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지성소가 눈에 들어왔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함의 상징이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다. 말씀을 가지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너무 봄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주변만 살펴보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내가 천국 문 밖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성막체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앞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것이다.

신앙에세이



김상수 목사
(양재 도곡교육관)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세간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화는 추상미 감독이 만든 것으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의 전쟁고아 1,500명을 비밀리에 폴란드 정부에 부탁해서 1959년 북송되기까지 폴란드 선생님들이 약 8년 동안 양육한 이야기다.

폴란드 선생님들은 북한 고아들의 전쟁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 정성으로 양육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당시 아이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 영화는 남한 여자(추상미)와 북한 여자(이송)가 위대한 사랑을 찾아 폴란드에 가서 “징쿠예”(폴란드어로 감사하다는 뜻)라고 인사하는 치유와 회복 여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 중간에 1,500명의 전쟁고아들을 폴란드 의사가 건강검진 했는데 기생충이 많이 나와 자세히 확인해보니 지역적으로 북한 것과 남한의 것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했다. 1,500명 고아 중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아이들도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생면부지의 폴란드인들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의 전쟁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을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처럼 ‘남한으

폴란드로 간 아이들, 남한으로 온 사람들

로 온 사람들’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3만3천여 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같은 핏줄임에도 우리에게 왜 그만한 사랑조차 없을지. 지금까지 남한 사회와 교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을 잘 돌보고 살피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오랜 전쟁의 상처와 분단은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책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까지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정치 혹은 사회적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적 통일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먼저 마음을 열고 바라는 통일은 신뢰에 기초를 두기에, 먼저 온 탈북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준다면 결국 언젠가 통일무드가 조성되었을 때 이들이 통일의 참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한반도 통일시대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소식에 전 세계 외신기자들에 의해 해외토픽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에 유명하게 하시고, 유일한 분단국가로 초미의 관심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일 것이다. 곧 개봉하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관람하며 ‘남한으로 온 사람들’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구원의 검

진정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공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편 91편에 보니까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탄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인용으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읽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공격하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또 다시 대응하시며 공격 하셨습니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신 6:16).

세 번째 시험에 이르러 사탄은 무척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교묘하게 포장하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때만 사탄이 당황합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문화 그 어떤 것도 사탄을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의 한계는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신 6:13).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에게 대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만으로 성령의 검만으로 대응하라 그래야 사탄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공격이든 지 대응하고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의 칼집에 늘 꽂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시련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릴 수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연구, 성경공부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독, 묵상, 암송, 연구이건간에 모든 종류의 성경공부의 목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졌는가?”라는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킨 모습이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추구할 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내적인 빛, 내적 조명을 추구하면 신

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 없이 기계적, 문자적, 지식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생명 없는 종교적 생활로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미움의 칼, 분노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늘 예리하게 묵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신을 신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칼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영적 전쟁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신령 무기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새롭게 공급해 주신 성령의 검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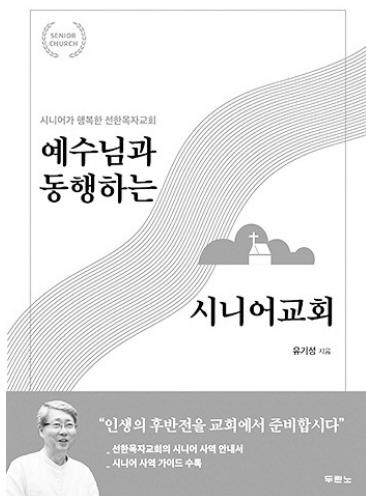
오늘 신고 나간 군화가 산 넘고 물을 건너다니다 젖었습니다. 방패는 적들의 화살을 막느라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천국의 무기고를 활활 열어서 내일 아침 싸우러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찌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적을 내쫓고 당황케 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마음의 칼집에 꽂혀 있어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천국 같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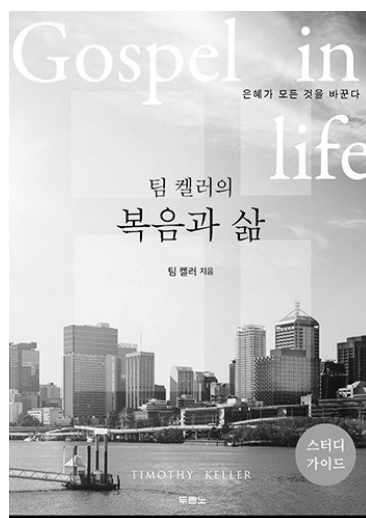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교회〉
유기성 저 | 두란노 | 15,000원

니어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천국 같은 교회는 다투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무조건 사랑하는, 겸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는, 매사에 정의롭게 행동하는 교회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에도 날이 갈수록 청장년층 비율이 줄어들고 노년층 비율이 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노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시니어사역에 대한 가이드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유기성 목사가 시니어사역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에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교회〉를 펴냈다. 유목사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하여 선한목자교회에 ‘갈렙교회’를 세웠다. 이 책은 유목사가 갈렙교회를 세우면서 얻은 시니어사역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유목사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섬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



〈복음과 삶〉
팀 켈러 저 | 두란노 | 20,000원

는 소그룹 모임을 갖기 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룹스터디는 소그룹 안에서 토론과 묵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스터디 가이드는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지침서이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는 〈복음과 삶〉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종교적인 교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정 기간 이상 복음이 당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가르치도록 하라. 복음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여라. 당신의 동기와 관점과 태도가 바뀔 것이다.”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은 ‘홈 스터디’, ‘그룹 스터디’, ‘스터디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홈 스터디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포 하노 습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스페인어예배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톡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서빙고, 양지 한식당팀 정직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자격: 경력부관(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

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두란노 어머니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11월 14일~12월 12일 매주 수요일

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회비: 12만원(우리은행 1005-381-711002)

접수: 아이스쿨, 02-2182-9114

www.mother.or.kr

QT로 세우는 목회

일시: 11월 5일, 12일, 19일 10:00~16: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대상: 목회자 및 사모, 선교사

신청: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투루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11월 5일까지는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11월 12일부터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권사성가대 제2회 정기연주회

일정: 11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문의: 02-570-7469

양재 커피숍, 정직원 모집

모집: 커피,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자격: 경력부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어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을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10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0/7, 14: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10/21, 28: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시 25분 오후 2시

차세대예배 영어/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키즈 오후 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어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아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아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아지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편젤러홀

꿈아지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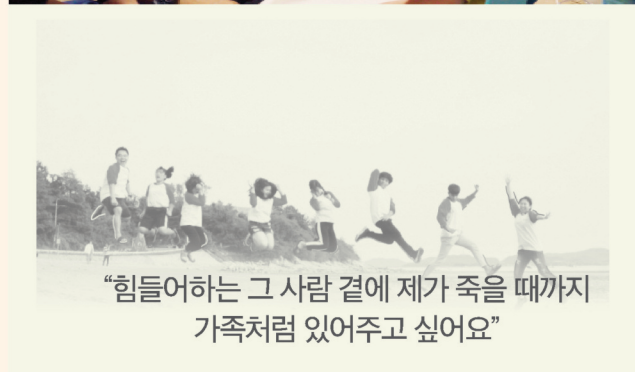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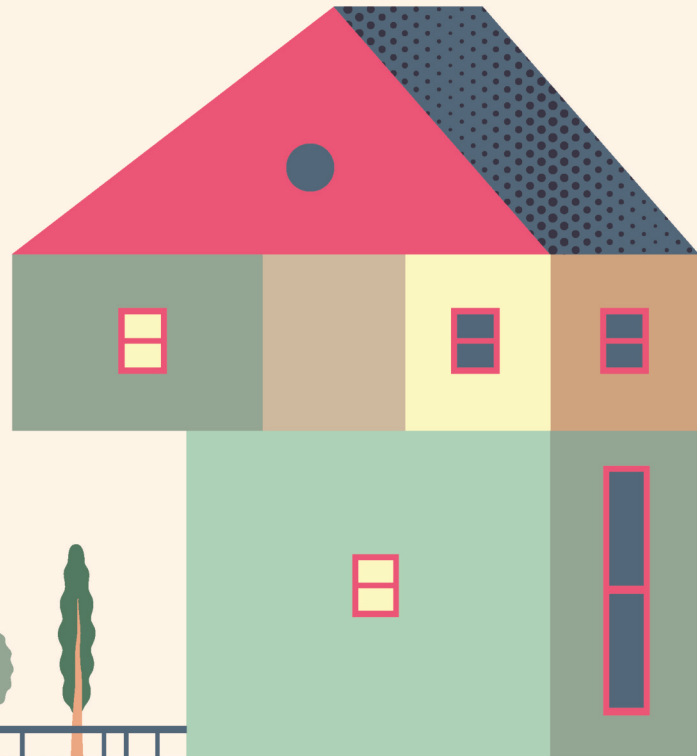
KNOCK 미니휴먼다큐

베리 굿 하우스

친구같은 가족, 가족같은 친구
아낌없는 사랑으로
다문화한부모가정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10월 28일, 오늘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 곁에 제가 죽을 때까지
가족처럼 있어주고 싶어요”



다시보기

<이웃사춘기> 입양은 선교대! 입양으로 만난 여섯 식구가 겪는 따뜻한 사춘기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